

與 ‘탈원전’ 이견 표출... 3野 정책 폐기 압박

송영길 “신 한울 건설 검토 필요”...우원식 “부적절 발언” 비판 한국당·바른미래·평화당 “재검토해야”...靑 “기조 변함 없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14일 ‘탈원전’ 정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송영길·우원식 의원이 이견을 표출한 것을 계기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 및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영길 의원에 대해 “용기있는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신한울 원전의 건설재개는 물론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권 내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신한울 원전 3·4호기

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탈원전 정책은 우리 원전의 생태계는 물론 미래먹거리를 앗아가고, 전기료 인상을 비롯해 친환경적이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와 기타 에너지 수급 정책 등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이미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의원은 올린 원전 건설재개를 주장했고, 우원식 의원은 시대변화를 못 읽는 것이라고 여기에 반박했다”며 “여러 사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의 ‘물지마 탈원전 정책’ 상황에서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평가한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신한울 3·4호기 재추진 문제를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내부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론화해서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기로 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논란에 대해 못을 박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책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추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단일지도체제 유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자유한국당이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이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단일지도체제 규정을 포함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다음 달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방침이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권력이 분점되는 집단지도체제보다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돼 효율적인 당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표의 당 운영이 잘못될 경우 심각한 계파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일관적이다.

이번 전대에서는 이와 함께 여성 최고위원을 다른 후보들과 분리하지 않고 통

합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안은 여성 최고위원 동시선출을 규정할 후 최고위원 선거의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당 조강특위는 이날 당협위원장 인선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특위는 애초 이날 인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발표를 미뤘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바른정당 출신 또는 비박계 인사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 전대를 앞두고 비박계에 유리한 구도를 조성하려 한다며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당,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총력

4·3 보궐선거...경남 창원성산 당직자 파견 선거운동 대비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 사수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노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연초부터 중앙당 당직자를 대거 현지로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지도부는 14일 오전에는 창원시의회에서 상무위원회의까지 열고 보궐선거 필수 의지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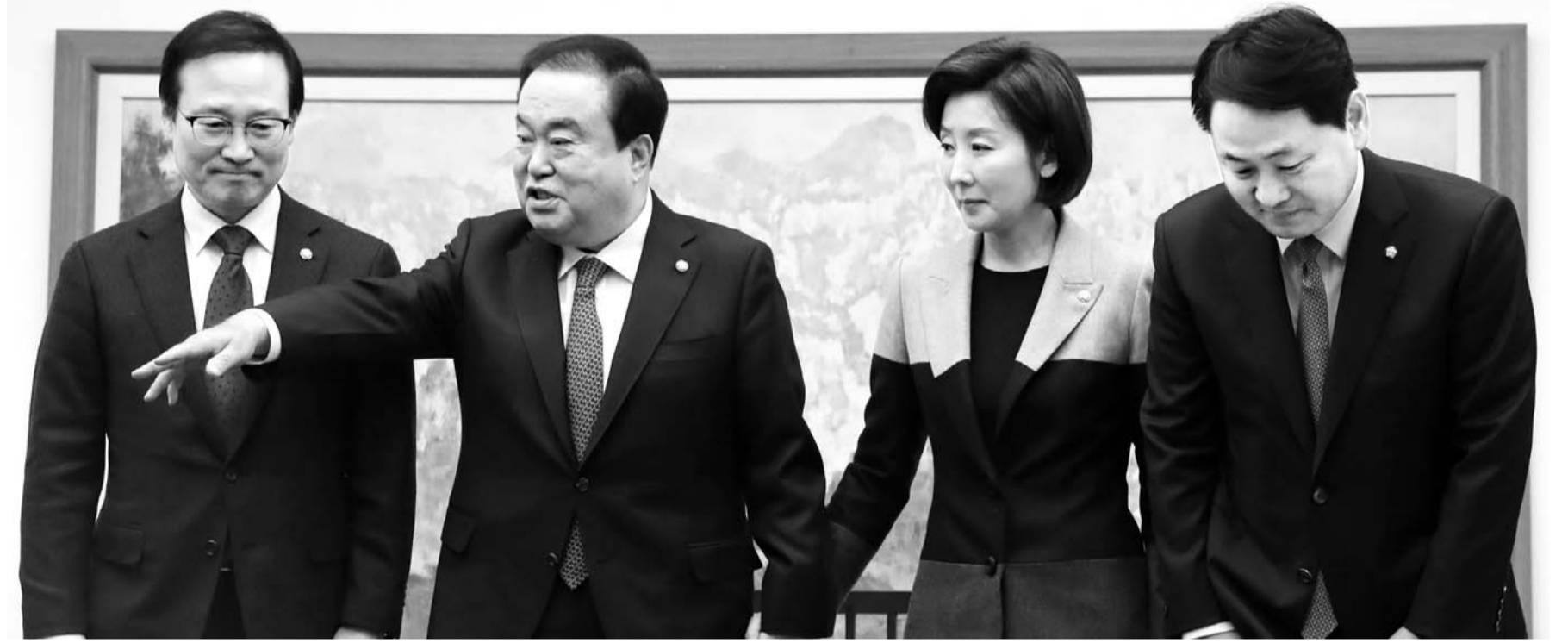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에서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으로 살아가는 정당이고, 노회찬의 유지는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며 “창원 5만 당원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겠다. 경남의 심장 창원에서 정의당을 다시 불러달라”고 호소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소재연구원 설치, 창원 전철로 산업위기특별지역 확대, KTX와 SRT 통합 운영에 의한 고속철도 열차 증편 등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정의당에서는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여 예비후보는 과거 진보신당과 노동당, 정의당 소속으로 경남도위원을 두 차례 지냈으며, 지역 노동계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도 접촉면이 넓은 토박이다. 또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지사로 재임하던 때 그와 고소·고발을 주고받고, 사퇴 촉구 단식 농성을 벌이며 대결한 일화로 잘 알려져 있다. 20대 총선에선 지역구를 고민하던 노회찬 전 의원에겐 창원성산 출마를 권유하고, 직접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극적인 당선 이끌기도 했다.

여 예비후보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에 캠프를 차렸으며, 전략, 홍보 등의 업무를 맡은 중앙당 당직자들이 합숙 생활을 하면서 선거운동 준비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새해엔 협치 합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새해 첫 회동부터 불협화음

문 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임시국회·특검 놓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4일 국회에서 연쇄 회동하고 쟁점 현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을 한 뒤 오전과 함께 오후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들은 1월 임시국회 소

집을 비롯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및 관계 상임위 개최, 선거제 개혁 등을 논의했다. 특검 도입과 상임위 개최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문제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바른미래당이 각각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후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특검 요구를 계속하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관련,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민생 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을 위한 장을 여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여야는 오전 회동 전 모두발언부터 기 싸움을 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올해도 의회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꽃피는 한 해가 되

기를 바란다”며 야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대화를 하려면 좀 만나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를 열어주지 않더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수시로 열어야 한다”며 “최근에 여당의 반대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굉장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다 같이 알아야 민주주의지만, 큰 것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한해 화이부동(和而不同·사이가 좋게 지내되 무뎠다고 좇지는 아니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한 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